

KIA 고영창 “수훈 인터뷰 꼭 하고파”

투심 패스트볼로 연습경기서 4경기 무실점 행진 “응원해준 가족들에게 고맙다고 말해주려고요”

누군가는 200이닝 달성이 목표라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시즌 10승 이상을 꼭 달성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고영창(30-KIA 타이거즈)은 경기 수훈선수 인터뷰를 한번 하는 것이 올 시즌 목표다.

그 자리를 빌려 7년간 보여준 것 없는 자신을 끝까지 믿고 응원해준 가족들을 비롯해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다.

지난 2일 오후 KIA의 스프링캠프지인 일본 오키나와현 긴 구장에서 고영창을 만났다.

훈련이 예상보다 길어져 인터뷰를 위해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했지만, 그만큼의 보람이 있었다.

그의 말에는 오랜 시련을 이겨낸 자 특유의 묵직한 울림이 담겨 있었다.

우완 투수인 고영창은 2013년 신인 드래프트 2차 6라운드 전체 53순위 KIA 유니폼을 입었다.

하지만 통산 1군 기록은 지난해 2경기에 출전한 것이 전부다. 게다가 그 2경기 모두 아웃 카운트를 단 하나도 잡아내지 못하고 교체됐다.

지난해 퓨처스(2군) 리그 34경기에서 88%이닝을 소화하며 6승 3패 1홀드 3세이브 평균자책점 3.87을 올렸지만 1군 무대의 벽은 높았다.

칼을 간 고영창은 비장의 무기를 안고 이번 캠프를 맞았다. 바로 투심 패스트볼이다.

고영창은 “지금까지는 구속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욕심을 버렸다”며 “무브먼트(움직임) 쪽으로 가자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고영창은 지난해 마무리캠프부터 직구 대신 거의 투심 패스트볼만 던졌다. 서재용 투수코치의 도움을 받아 그립까지 바꾼 고영창의 투심은 겉으로 보기

에는 치기 쉬운 것 같지만 마지막 순간 배트의 중심을 비켜나갔다.

고영창은 이번 캠프 연습경기에서 4경기에 등판해 5%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 12일 주니치 드래곤전전에서 2%이닝 2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포수, 타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투심의 각이 좋아서 시즌 때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해주었다”며 “아직은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쁘다”고 했다.

더 기쁜 것은 가족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을 알릴 수 있어서다.

그는 “저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니 가족들이 너무 좋아한다. 7년간 보여준 게 없어서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며 “더 잘하고 싶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런 그의 올 시즌 목표는 소박하긴 하지만 경기 수훈선수로 뽐내 방송 인터뷰를 하는 것이다.

그는 “가족을 비롯해 지금까지 저를 도와준 분들이 너무 많다”며 “인터뷰하면서 그 고마움을 말하면 그분들도 뿌듯해하실 것 같다”고 했다.

김기태 KIA 감독은 “이번 캠프에서 고영창이 제일 좋다. 지난해 2군에서 부상 없이 풀타임을 뛰었다”며 올 시즌 1군 불펜 투수로 기회를 줄 뜻을 밝혔다.

고영창은 팀 동료인 좌완 투수 임기준(28)의 이종사촌 형이다.

초·중·고교에 이어 프로 구단까지 같은 길을 걸어왔지만, 그동안은 ‘동생’ 임기준이 더 많은 주목을 받았다.

고영창은 “지난해(임)기준이의 활약을 보고 자극을 많이 받았다. 응원하면 서도 부러웠다”며 “올해만큼은 함께 잘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싶다”고 말했다.



KIA타이거즈는 지난달 1일부터 오는 9일까지 일본 오키나와에서 스프링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스프링캠프서 불펜 피칭을 하고 있는 고영창. /KIA타이거즈 제공

지소연, A매치 통산 50골 돌파

A매치 111경기 51골...세번째 100-50클럽 가입

한국 여자축구대표팀의 에이스 지소연(28·첼시 레이디스·사진)이 한국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다.

지소연은 한국축구 선수 중 남녀를 통틀어 '100(경기)-50(골) 클럽'에 가입한 세 번째 선수다.

지난달 28일 아르헨티나와 호주 4개국 대회 첫 경기에서 멀티 골을 터뜨린 지소연은 5-0 대승을 이끌고 A매치(국가대표팀간 경기) 통산 111경기에서 51골을 기록하게 됐다.

지금까지 한국 남녀 선수 중 센추리클럽(A매치 100경기 출장)에 가입과 함께 50골 이상을 기록한 건 지소연과 '차범' 차범근 전 수원 삼성 감독, 황선홍 연변(중국) 감독 등 3명뿐이다.

차범근 전 감독은 A매치 최다 출장(136경기)과 최다 골(58골) 기록을 모두 보유 중이다.

차범근 전 감독의 최다 골 기록에 7골 차로 다가선 지소연이 이 부문 신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크다.

지소연은 호주 4개국 대회 호주, 뉴질랜드전을 앞두고 있고, 6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월드컵에 출전하는 등 당분간 대표팀의 골잡이로 활약하기 때문이다.

그는 작년 4월 8일 호주와 2018 아시아 축구연맹(AFC) 여자 아시안컵 조별리그 경기에서 한국 여자 선수로는 권하늘(은퇴)과 김정미(인천현대제철), 조소현(웨스트햄)에 이어 4번째로 센추리클럽에 가입했다.

지소연은 15세 8개월의 나이였던 2006



년 10월 30일 캐나다와 피스컵을 통해 A매치에 데뷔해 한국 남녀 선수를 통틀어 '최연소 A매치 데뷔' 기록 보유자다.

그는 또 FIFA가 주관하는 대회에서 11골을 넣어 이 부문에서 여민지(수원도 시공사)와 손흥민(이상 8골)을 제치고 가장 맨 위에 이름을 올려냈다. 그는 2008년 U-17 여자 월드컵 2골과 2010년 U-20 여자 월드컵 8골, 2015년 캐나다 여자 월드컵 1골을 터뜨렸다.

지소연은 6월 프랑스 여자 월드컵에서 FIFA 주관 대회 최다 골 신기록 행진을 이어간다. /연합뉴스

광주FC, 수원 삼성 출신 김준형 영입

광주 유스 출신 김대웅도 신인자유선발로 영입

프로축구 광주FC가 미드필더 김준형을 영입하며 중원 전력을 강화했다.

광주는 최근 수원 삼성으로부터 미드필더 김준형(22)을 1년간 임대 영입하고, 광주 유스 출신인 김대웅(23)을 신인자유선발로 발탁했다고 3일 밝혔다.

날카로운 패스, 경기 조절 능력, 탈압박 등의 강점을 지닌 김준형(177cm·73kg)은 2016년 모교인 순호대를 U리그 왕중왕전 준우승으로 이끌며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듬해 수원에 입단하며 프로생활을 시작한 김준형은 이종성, 사리치 등과의 경쟁과 부상으로 1년반 만에 데뷔전을 치렀지만, 불배급과 강력한 슈팅으로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으며 제2의 광창훈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파울루 벤투 국가대표 감독이 2019 UAE 아시안컵 예비명단에 깜짝 발탁하는 등 차세대 국가대표로서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김준형은 “아직 부족하지만 경쟁을 통해 반드시 그라운드에서 서고 싶다”며 “광주를 승격으로 이끌고 선수로서 가치도 증



명하겠다”고 밝혔다. 신인자유선발로 입단한 김대웅(175cm·68kg)은 광주 U-18(금호고) 출신으로 안정적인 포백보호와 빌드업이 강점인 수비형 미드필더다. 폭넓은 움직임으로 공격적 감각도 좋다.

박진섭 감독은 “김준형과 김대웅은 중원에서 활발한 움직임으로 수비와 공격을 지원하는 살림꾼같은 존재”라며 “기존 선수들과의 경쟁과 훈련을 통해 최고의 조합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는 10일 오후 1시 광주월드컵 경기장에서 아산 무궁화를 상대로 홈 개막전을 치른다. /차이정 기자 chaajung@

정우영, 분데스리가 데뷔...유효슈팅도 기록

한국 축구의 '기대주' 정우영(20)이 독일 프로축구 명문 클럽 바이에른 뮌헨에서 분데스리가 데뷔전을 치렀다.

정우영은 3일(한국시간) 독일 뮌헨글라트바흐의 보루시아 파크에서 열린 보루시아 뮌헨글라트바흐와 2018-2019 분데스리가 원정경기에서 후반 41분 그라운드를 밟았다.

토마스 뮐러와 교체돼 경기에서 나선 정우영은 약 5분간 2선에서 원톱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를 받쳤다.

43분에는 레반도프스키의 패스를 받아 위협적인 유효슈팅을 하나 기록하며 인상적인 활약을 남겼다.

지난해 11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본파키와 조별리그 경기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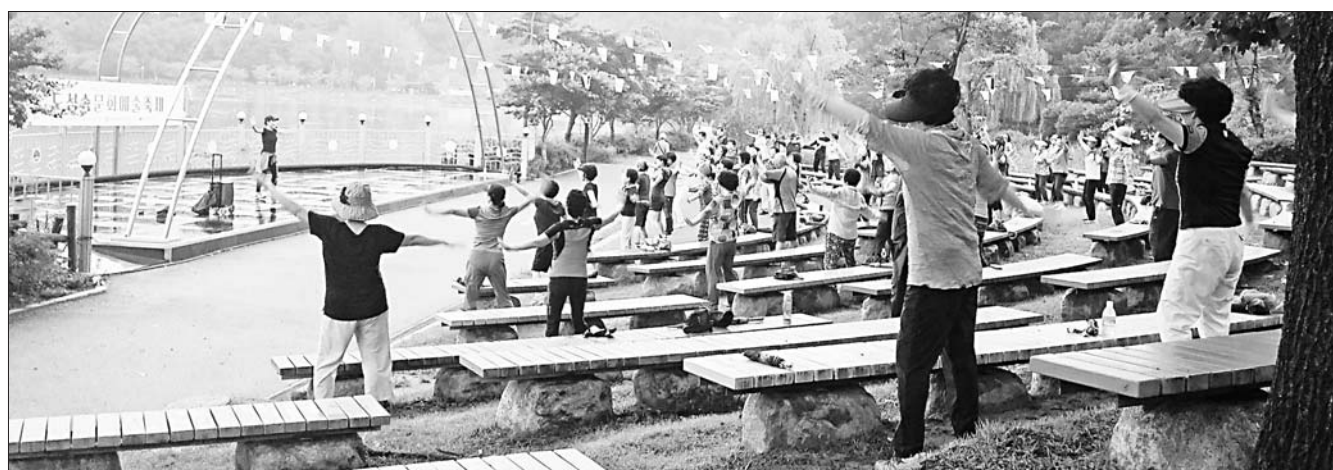


볼 경합을 하는 정우영(왼쪽)

1군 데뷔전을 치렀던 정우영은 약 4개월 만에 분데스리가 무대에 올랐다. 뮌헨은 9일 볼프스부르크와의 경기에서 리그 선두 탈환을 노린다. /연합뉴스

광주시체육회 ‘시민 1인1종목 갖기’ 운동

생활체육 사업 추진...중흥정구장 등 관내 체육시설 50개소서 연말까지 운영



광주시체육회는 연말까지 중흥정구장 등 관내 50개 체육시설에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생활체육 시민 1인1종목 갖기 운동’ 사업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들이 지도자를 따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광주시체육회가 건강한 체육 활동으로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생활체육 사업을 시작한다.

시체육회는 3월부터 연말까지 중흥정구장 등 관내 50개 체육시설에서 시

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생활체육 시민 1인1종목 갖기 운동’ 사업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 1인1종목 갖기 운동 사업은 지역 주민의 체력 향상과 이웃 간의 화합, 건전

한 여가풍도 조성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분야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장소 또한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고려해 아파트 단지 내

박성현, LPGA HSBC 챔피언십 정상

쥘타누칸에 역전승...통산 6승째

박성현(26·사진)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HSBC 월드 챔피언십(총상금 150만 달러) 우승을 차지했다.

박성현은 3일 싱가포르 센토사 골프클럽 뉴 탄종 코스(파72·6천718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9

개를 몰아치고 보기는 1개로 막아 8언더파 64타를 쳤다.

최종합계 15언더파 273타를 기록한 박성현은 투어 통산 6승째를 거뒀다. 우승상금은 22만5천 달러(약 2억5천만원)다.

3라운드까지 선두 에리아 쥘타누칸(태국)에게 4타 뒤진 공동 8위였던 박성현은 이날 역전 드라마를 연출하며 지난해 8월



인디 위민 인 테크(IWIT) 챔피언십 이후 6개월여 만에 승수를 보냈다. 한국 선수들은 2019시즌 열린 5개 대회에서 절반이 넘는 3승을 합작했다.

1월 시즌 첫 대회로 열린 다이아몬드 리조트 챔피언십 토너먼트 지은희(33), 2월 혼다 타이랜드 양희영(30)에 이어 3월 첫

대회에서 박성현이 승전보를 전했다. 박성현은 3월 6일부터 사흘간 필리핀과 대만 여자골프 투어가 공동 개최하는 더 컨트리클럽 레이디스 인비테이션널에 출전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이동한다.

LPGA 투어는 2주를 쉬고 21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개막하는 벅크 오브 호프 파운더스컵으로 이어진다. /연합뉴스